

‘불교중흥 위한 회향’, 상월결사 2주년 맞아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입력 2021.11.11 17:34 수정 2021.11.12 15:12 댓글 0



상월결사 2주년 기념식 및 삼보사찰 108천리순례 회향식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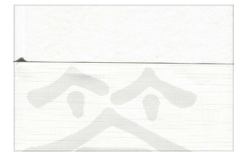
상월결사는 11월 11일 서울 봉은사 인근 라빌웨딩홀에서 상월결사 2주년 기념식 및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식을 봉행했다.

한국불교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2주년을 맞아 불교진흥을 위한 회향무대를 열었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1월 11일 서울 봉은사 인근 라빌웨딩홀에서 상월결사 2주년 기념식 및 삼보사찰 108천리순례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념식 및 회향식은 부처님 법대로 살기 위해 2019년 11월 11일 입재한 위례 상월선원에서의 90일간 용맹정진, 그리고 이어진 2020년 만행결사 자비순례와 2021년 만행결사 삼보순례 등을 돌아보고, 새로운 힘을 얻는 자리였다.

최신뉴스

새롭게 발견한 화두 '어쩌라구', 詩가 되다



트롯 팬들, 가수 이름으로 생명나눔에 1만원 후원



당신의 나한님은 누구십니까?



지구촌공생회, 노후 교육시설 개보수 위한 금 캠페인



시민들에게 탁발재현 행사 펼쳐



인기뉴스

- 1 4대 종단, 국회앞서 화(和)요 기도회
- 2 조계종 "봉은사 토지, 봉은사로 환지분차
- 3 영원한 수좌 인간대중사여! 속한 사바하.
- 4 조계종 집행부 스님들, '정청래 사태' 먼저
- 5 "인공지능에도 과연 불성 존재할까?"



이날 회향식에서는 천리순례를 완보한 88명에게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완보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천리순례 완보 88명, 완보증서 수여

총도감 호산 스님은 천리순례 보고에서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순례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19일까지 승보종찰 송광사부터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423km에서 펼쳐졌다”며 “비구 49명, 비구니 6명, 우바새 14명, 우바이 26명 등 사부대중 94명이 첫발일 내딛어 88명의 사부대중이 완보했다. 순례지원단은 14명이 완보해 108명이 보살행을 이루고자 했다.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화엄사 실상사 표충사 천은사 등 유서깊은 9곳 사찰 참배와 함께 전라도와 경상도 등 5개 광역 단체와 순천 곡성 남원 고령 합천 창녕 밀양 등 12곳 기초단체를 순례하며 지역마다 뛰어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 지역민들의 삶과 문화를 체득했고 불교 중흥의 원력을 키웠다”고 보고했다.

이날 천리순례를 완보한 88명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상월결사 완보증서가 책으로 만들어져 전달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직접 완보증서를 수여하며 상월결사 정신을 천리순례 회향 후에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총도감 호산 스님이 천리순례 기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과 김순호 구례군수에게 감사패와 축비를 전달했다.



상월결사는 불교단체들에게 선사화전 모연액으로 불교중흥 기금 28억여원을 전달했다.

선사화전 수익금, 불교 발전에 회향

[현대불교NEWS] 불교중흥



[영상]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이와 함께 불교중흥을 위한 선서화전 수익금을 불교단체들에게 전달하는 자리도 진행됐다. 모연액 29억 5300만원 중 불교단체 지원기금 28억 여원이 조성됐다. 지원기금은 △불교법당 건립과 불교성전 법보시 등을 포함한 중립 동국대 중흥기금 △불교언론 중흥기금 △탄자니아 보리가람 학교 지원금 △나란다축제 등 청소년 포교 진흥기금 △인도만행 기금 1억원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 △중앙승가대 교육기금 △학인스님 장학금 △중앙종책모임 종책개발기금 등으로 모두 회향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이날 결사에 대한 마음가짐과 한국불교 변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하화중생’ 치열했나...그 반성이 결사 근간”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이날 삼보사찰 천리순례 자자회 당시 묵언으로 전했던 결사에 대한 마음을 대중들에게 털어놨다.

먼저 “전사회에 본말사, 종회의원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줘 기금이 모였다”고 감사를 표한 스님은 “삼보순례 중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결사’다. 상월결사는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정혜결사는 불교가 사치스러워지고 부패하다보니 수행으로 이겨내자는 것이었고, 봉암사결사는 왜색불교를 청산하고 한국불교 전통을 세우고,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것이었다”며 “지금 한국불교를 돌아보면 신심과 원력이 부족하고, 출가자는 줄고, 신도도 감소하는데 어떠한 원력을 갖고 수행과 정진을 하는가 반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이 평생 전법포교를 하셨다. 앉아서 대접 받으신게 아니라 평생 전법포교하시다 돌아가셨다. 한국불교는 어떤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스님은 “상구보리 하화중생하고 있는가. 자리이타 중 자리행에는 연연하지만 이타행에는 나서는가. 이 책임을 사부대중이 짊어지고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 부처님 그늘 속에서 성직자 생활하는 우리들이 이타행에 철저히 않으면 극복하기 힘들다. 우리 사회 이웃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보고 포교했는지 되새겨야 한국불교의 총체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영상으로 보는 삼보순례’, 순례보고, 완보증서 전달, 감사패 전달, 지원금 전달, 회주 자승 스님 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원로의원 자광 대종사, 중앙총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동국대 상임이사 성월 스님,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중앙승가대 총동창회장 성행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및 주요사찰 스님들이 참여했다. 또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채석래 의원원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noduc@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나란다축제서 삼보사찰 메타버스로 구현된다

[상월결사 2주년] 렌즈에 담은 고행과 환희의 시간

[상월결사 2주년] “나를 바꾸니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불교 중흥 위한 '초대형' 선사화전 시작 알리다

'상월결사정신' 청년포교로 전개

[영상] 삼보순례, 부국-밀양-표충사 거쳐 사자평까지

[영상] 상월결사 삼보순례단, 경북서 경남으로... 영취산 넘어 '부국' ...
- [상월결사 2주년] 상월결사가 이끈 변화들

[상월결사 2주년] 우리사회 변화시킬 21세기 결집 '상월결사'

[상월결사 2주년] 천막부터 순례까지 상월결사 2년 여정

불연맺기 '수미산 원정대', 새 활력 얻다

[영상]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화향

[영상] 천리순례 15일차, 상월결사-조계종 포교원 토크콘서트 개최

이시각추천뉴스

- “국일암 소장 문화재건축학적 위상 재조명 필요”
- 동국사보물 불상 ‘발원문’이 사라졌다
- “진정한 일상회복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
- 조계종 “봉은사 토지, 봉은사로 한지분처를”
- “우린 '원팀 동국'... 오고 싶은 학교 만들겠다”
- 범어사, 국내 최대 성보박물관 개관
- “디지털 네이티브 위한 승가교육 필요”



"미안마에 컴퓨터공학과 만들고
싶어요"

빨리 해볼걸.. 뱃속 "지방,노페
물" 팔팔 비워내는 '이것'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출범 2주
년 맞아 호국성지 걷은 까닭은

"기미,검버섯" 바르고 쓱~빼내
는 대박 크림!!

불교환경연대, 축산업 주제로 환
경포럼

나란다축제로 삼보사찰 메타버
스로 구현된다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제2회 생명나눔대상에 '수지' 선정



절터 복원·명상... '메타버스' 빠진 불교



범어사 금어선원 수좌 금우당 인각대
종사 입적



한마음선원 도량탐, 통영에 우뚝 서다

중생 소리 듣는 관찰자 '관세음보살'



건학위로 뭉친 동국대, 중앙일보 대학
평가 9위 ... 역대 최고 순위

로그인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구독신청

아이디찾기
불편신고

발행 편집인 : 조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